

## 한국인의 사망수준

- 우리나라는 영양 및 의료환경의 개선,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OECD 평균보다 높아졌음.

- 사망원인별 순위는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순으로 높으나 고의적자해(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1. 평균수명

□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영양 및 의료환경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 197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61.9년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1990년에는 71.3년, 2008년에는 80.1년으로 증가하였음.

○ 남자의 평균수명은 1970년 58.7년에서 1990년에는 67.3년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76.5년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 비하여 17.8년이 증가하였음.

○ 여자의 평균수명은 1970년 65.6년에서 1990년에는 75.5년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83.3년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 비하여 17.7년이 증가하였음.

○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1970년에는 6.9년, 1990년에는 8.2년, 2008년에는 6.8년이 많아 남녀의 차이가 점차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1] 조사망률 및 평균수명

(단위: 명, %, 년)

연도	사망자수	조사망률	평균수명			
			전체	남자	여자	차(여-남)
1970	258,589	8.0	61.9	58.7	65.6	6.9
1975	270,657	7.7	63.8	60.2	67.9	7.7
1980	277,284	7.3	65.7	61.8	70.0	8.2
1985	240,418	5.9	68.4	64.4	72.8	8.4
1990	241,616	5.6	71.3	67.3	75.5	8.2
1995	242,838	5.3	73.5	69.6	77.4	7.8
2000	246,163	5.2	76.0	72.3	79.6	7.3
2005	243,883	5.0	78.6	75.1	81.9	6.8
2008	246,113	5.0	80.1	76.5	83.3	6.8

주: 1) 조사망률 = (사망자수/인구) × 1,0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통계청, 생명표

- OECD 국가의 평균수명은 79.0년(2007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남자는 76.2년으로 우리나라의 76.1년 보다 약간 높았고, 여자는 81.8년으로 우리나라의 82.7년 보다 낮았음
  - OECD 국가 중 일본이 82.6세로 가장 높고, 터키가 71.8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남자의 평균수명은 아이슬란드가 79.4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헝가리가 69.2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여자의 평균수명은 일본이 86.0년으로 가장 높았으며, 터키가 74.2년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
  - 남녀의 평균수명 차이는 헝가리가 8.1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였고, 아이슬란드가 3.5년의 적은 차이를 보였음.

[표2] OECD 국가의 평균수명

(단위: 년)

국가	연도	연 령			
		전체	남자	여자	차 (여-남)
한국	2007	79.4	76.1	82.7	6.6
호주	2007	81.4	79.0	83.7	4.7
오스트리아	2007	80.1	77.3	82.9	5.6
캐나다	2006	80.7	78.4	73.0	4.6
프랑스	2007	81.0	77.5	84.4	6.9
독일	2006	79.8	77.2	82.4	5.2
헝가리	2007	73.3	69.2	77.3	8.1
아이슬란드	2007	81.2	79.4	82.9	3.5
이탈리아	2006	81.2	78.4	84.0	5.6
일본	2007	82.6	79.2	86.0	6.8
네덜란드	2007	80.2	78.0	82.3	4.3
뉴질랜드	2007	80.2	78.2	82.2	4.0
스웨덴	2007	81.0	78.9	83.0	4.1
스위스	2006	81.7	79.2	84.2	5.0
터키	2007	71.8	69.3	74.2	4.9
미국	2006	78.1	75.4	80.7	5.3
OECD 국가 평균 <sup>1)</sup>	2007	79.0	76.2	81.8	5.6

주: 1) OECD 국가 중 2007년의 자료가 없는 국가는 가장 최근연도의 자료를 적용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09, 2009

## 2. 특성별 사망률 추이

- 2008년의 연령별 사망률은 1998년에 비하여 0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8년 0세의 사망률이 낮은 이유는 1998년까지 신고의 누락 등이 많았던 원인으로 생각됨

- 연령별 사망률은 0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연령층은 10대 연령층으로 53.1%의 감소를 보임.
-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은 0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연령층은 10대 연령층으로 54.7%의 감소를 보임.
- 여자의 연령별 사망률은 0세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감소를 보였으며,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연령층은 1~9세 연령층과 10대 연령층으로 50.3%의 감소를 보임,

[표3]성·연령별 사망률 추이, 1998~2008

(단위: 인구10만명당, %)

		연 령										
		전연령	0세 <sup>1)</sup>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세이상
전 체	1998	519.2	228.2	37.5	44.8	82.0	145.2	324.3	735.3	1,652.3	4,441.9	12,661.0
	2008	498.2	345.5	17.8	21.0	55.4	86.2	210.8	446.6	1,052.3	2,918.3	10,009.1
	증감	-21.0	117.3	-19.7	-23.8	-26.6	-59.0	-113.5	-288.7	-600.0	-1,523.6	-2,651.9
	증감률	-4.0	51.4	-52.5	-53.1	-32.4	-40.6	-35.0	-39.3	-36.3	-34.3	-20.9
남 자	1998	580.5	239.5	42.5	57.6	113.1	204.1	481.2	1,101.1	2,464.6	6,129.2	15,220.5
	2008	553.1	357.5	19.6	26.1	66.9	109.1	300.1	662.1	1,561.2	4,176.9	12,500.6
	증감	-27.4	118.0	-22.9	-31.5	-46.2	-95.0	-181.1	-439.0	-903.4	-1,952.3	-2,719.9
	증감률	-4.7	49.3	-53.9	-54.7	-40.8	-46.5	-37.6	-39.9	-36.7	-31.9	-17.9
여 자	1998	457.4	215.7	31.8	31.0	49.5	83.1	160.4	383.4	1,028.0	3,460.4	11,705.7
	2008	443.0	332.7	15.8	15.4	43.2	62.5	118.3	230.3	601.2	2,100.5	8,996.1
	증감	-14.4	117.0	-16.0	-15.6	-6.3	-20.6	-42.1	-153.1	-426.8	-1,359.9	-2,709.6
	증감률	-3.1	54.2	-50.3	-50.3	-12.7	-24.8	-26.2	-39.9	-41.5	-39.3	-23.1

주 : 1) 신고누락이 많은 영아사망자수는 1999년 이후부터 화장장 자료에 의해 보완.  
 자료 :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9

- 2008년 사망자의 월별 분포를 보면 3월이 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1월로 8.9%, 그리고 12월이 8.8%를 점하여 겨울철과 환절기에 사망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의 월별 사망자 분포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2월이 0.8%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은 3월로 0.7% 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12월이 0.6% 포인트, 9월이 0.5% 포인트 감소하였음.
  - 2008년의 월별 남자의 사망자 분포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2월과 3월이 0.6%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12월이 0.4% 포인트, 9월이 0.4% 포인트가 감소하였음.
  - 2008년의 여자의 월별 사망자 분포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2월이 0.9%포인트가 증가하여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은 3월이 0.8%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12월이 0.9% 포인트, 9월이 0.6% 포인트 감소하였음.

[표4] 월별 사망자 분포

(단위: %)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98	전체	100.0	8.4	7.8	8.5	8.3	8.3	8.0	7.9	8.2	8.1	8.6	8.6	9.4
	남자	100.0	8.3	7.8	8.5	8.4	8.4	8.0	7.9	8.5	8.1	8.6	8.4	9.1
	여자	100.0	8.4	7.8	8.5	8.2	8.2	8.0	7.8	7.8	8.1	8.7	8.7	9.8
2008	전체	100.0	8.9	8.6	9.2	8.2	8.3	7.6	7.8	7.8	7.6	8.7	8.5	8.8
	남자	100.0	8.7	8.4	9.1	8.3	8.3	7.7	7.9	8.1	7.7	8.7	8.5	8.7
	여자	100.0	9.1	8.7	9.3	8.2	8.1	7.6	7.8	7.5	7.5	8.8	8.6	8.9
증감	전체		0.5	0.8	0.7	-0.1	0.0	-0.4	-0.1	-0.4	-0.5	0.1	-0.1	-0.6
	남자		0.4	0.6	0.6	-0.1	-0.1	-0.3	0.0	-0.4	-0.4	0.1	-0.1	-0.4
	여자		0.7	0.9	0.8	0.0	-0.1	-0.4	0.0	-0.3	-0.6	0.1	-0.1	-0.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 3. 사망원인

□ 2008년도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악성신생물(암)로 전체의 28.0%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은 뇌혈관질환으로 11.3% 그리고 심장질환이 8.7%, 고의적자해(자살)가 5.2%를 점하였음

○ 2008년의 사망원인 순위를 1998년과 비교해 보면 1, 2, 3위인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순위가 변동이 없었으나 1998년 7위이었던 고의적자해(자살)가 4위로 높아졌고, 당뇨병은 6위에서 5위로 높아졌음.

○ 특히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은 2008년 139.5명(인구 10만명당)으로 1998년 108.6명에 비해 30.9명이 증가하였음.

○ 반면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2008년 56.5명(인구 10만명당)으로 1998년 73.6명에 비해 17.1명이 감소하였음.

[표5] 사망원인 순위 추이, 1998~2008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

순위	1998		2008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1	악성신생물(암)	108.6	악성 신생물(암)	68,912	28.0	139.5
2	뇌혈관 질환	73.6	뇌혈관 질환	27,932	11.3	56.5
3	심장 질환 <sup>1)</sup>	38.4	심장 질환 <sup>1)</sup>	21,429	8.7	43.4
4	운수사고	25.6	고의적 자해(자살)	12,858	5.2	26.0
5	간질환	24.6	당뇨병	10,234	4.2	20.7
6	당뇨병	21.0	만성 하기도 질환	7,338	3.0	14.9
7	고의적 자해(자살)	18.4	운수사고	7,287	3.0	14.7
8	만성 하기도 질환	12.7	간 질환	7,164	2.9	14.5
9	고혈압성 질환	8.4	폐렴	5,461	2.2	11.1
10	호흡기결핵	7.1	고혈압성 질환	4,724	1.9	9.6

주 : 1)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자료 :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9

□ 2008년 악성신생물(암)에 의한 사망률은 폐암이 29.9명(인구 10만 명당)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간암 22.9명, 위암 20.9명의 순이었음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악성신생물(암)은 2008년에 139.5명으로 1998년에 비하여 30.9명(28.5%)이 증가하였음.

○암종류별 사망률을 1998년과 비교해 보면 전립선암이 1.6명증가하여 200.0%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은 대장암이 7.0명이 증가하여 101.4%, 유방암이 1.4명(66.7%), 췌장암이 2.9명(61.7%)의 증가를 보였음.

○반면 위암은 2.9명이 감소하여 12.2%의 감소율을 보였고, 다음은 자궁암 0.2명(7.1%), 식도암 0.2명(6.7%)의 감소를 보였음.

[표6] 악성신생물(암)의 성별 사망률 추이, 1998~2008

(단위: 인구 10만명당, %)

		악성신생물(암)											
		전체	식도암	위암	대장암	간암	췌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뇌암	백혈병
전 체	1998년	108.6	3.0	23.8	6.9	19.9	4.7	20.5	2.1	2.8	0.8	1.9	2.6
	2008년	139.5	2.8	20.9	13.9	22.9	7.6	29.9	3.5	2.6	2.4	2.1	3.1
	증감	30.9	-0.2	-2.9	7.0	3.0	2.9	9.4	1.4	-0.2	1.6	0.2	0.5
	증감률	28.5	-6.7	-12.2	101.4	15.1	61.7	45.9	66.7	-7.1	200.0	10.5	19.2
남 자	1998년	138.6	5.2	30.6	7.2	30.1	5.5	30.5	0.1	-	1.6	2.1	2.8
	2008년	176.9	5.0	27.1	15.5	34.4	8.6	44.0	0.1	-	4.7	2.3	3.5
	증감	38.3	-0.2	-3.5	8.3	4.3	3.1	13.5	0.0	-	3.1	0.2	0.7
	증감률	27.6	-3.8	-11.4	115.3	14.3	56.4	44.3	0.0	-	193.8	9.5	25.0
여 자	1998년	78.3	0.6	16.9	6.7	9.6	4.0	10.4	4.2	5.6	-	1.7	2.4
	2008년	101.9	0.6	14.6	12.2	11.3	6.6	15.8	7.0	5.1	-	1.9	2.6
	증감	23.6	0.0	-2.3	5.5	1.7	2.6	5.4	2.8	-0.5	-	0.2	0.2
	증감률	30.1	0.0	-13.6	82.1	17.7	65.0	51.9	66.7	-8.9	-	11.8	8.3

자료: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9

□ 2008년 순환기계통 질환의 사망률은 뇌혈관질환이 56.5명(인구 10만명당)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심장질환 43.4명, 허혈성질환 25.7명의 순이었음

○2008년 순환기계통 질환의 사망률을 1998년과 비교해 보면, 허혈성심장질환이 9.5명 증가하여 58.6%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은 고혈압성질환 1.2명(14.3%), 심장질환 5.0명(13.0%)의 증가를 보였음. 반면 뇌혈관질환은 17.1명(23.2%), 기타 질환 4.5명(20.3%)의 감소를 보였음.

[표7] 순환기계통 질환의 성별 사망률 추이, 1998~2008

(단위: 인구 10만명당, %)

		순환기계통 질환					
		전체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sup>1)</sup>	기타 질환 <sup>2)</sup>	뇌혈관 질환
전 체	1998	123.0	8.4	38.4	16.2	22.2	73.6
	2008	112.3	9.6	43.4	25.7	17.7	56.5
	증감	-10.7	1.2	5.0	9.5	-4.5	-17.1
	증감률	-8.7	14.3	13.0	58.6	-20.3	-23.2
남 자	1998	121.6	7.0	41.2	19.0	22.2	70.4
	2008	107.4	6.4	43.1	27.8	15.4	54.7
	증감	-14.2	-0.6	1.9	8.8	-6.8	-15.7
	증감률	-11.7	-8.6	4.6	46.3	-30.6	-22.3
여 자	1998	124.4	9.7	35.7	13.4	22.3	76.8
	2008	117.1	12.7	43.6	23.6	20.0	58.3
	증감	-7.3	3.0	7.9	10.2	-2.3	-18.5
	증감률	-5.9	30.9	22.1	76.1	-10.3	-24.1

주 : 1) 허혈성 심장질환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있음.

2) 기타 심장 질환에는 심부전, 심내막염 등이 있음.

자료 :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9

○ 남자의 2008년 순환기계통 질환의 사망률을 1998년과 비교해 보면, 허혈성심장질환이 8.8명 증가하여 46.3%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은 심장 질환 1.9명(4.6%)의 증가를 보였음. 반면 기타질환 6.8명(30.6%), 뇌혈관질환 15.7명(22.3%)의 감소를 보였음.

○ 여자의 2008년 순환기계통 질환의 사망률을 1998년과 비교해 보면, 허혈성심장질환이 10.2명 증가하여 76.1%의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은 고혈압성질환이 3.0명(30.9%)의 증가를 보였음. 반면 뇌혈관질환은 18.5명(24.1%)의 감소를 보였음.

#### 4. 자살에 의한 사망률 추이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08년 26.0명(인구 10만 명당)으로 1998년과 비교하여 7.6명(41.3%)이 증가하였음

○ 남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08년에 33.4명(인구 10만 명당)으로 1998년과 비교하여 6.9명(26.0%)이 증가하였음.

○ 여자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2008년에 18.7명(인구 10만 명당)으로 1998년과 비교하여 8.4명(81.6%)이 증가하여 남자에 비하여 증가율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8] 성별 자살자수 및 사망률 추이, 1998~2008

(단위: 명, 인구 10만명당)

연도	사망자수			사망률			1일평균 사망자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98	8,622	6,230	2,392	18.4	26.5	10.3	23.6
2008	12,858	8,260	4,598	26.0	33.4	18.7	35.1
증감	4,236	2,030	2,206	7.6	6.9	8.4	
증감률	49.1	32.6	92.2	41.3	26.0	81.6	

자료: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 통계연보, 2009

□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표준화사망률)은 11.2명(인구 10만명당)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국가의 평균 남자 자살률은 17.8명, 여자 자살률은 5.2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비교적 높은 자살률을 보인 국가는 헝가리로 21.0명(남자 36.3명, 여자 8.4명)이었으며, 다음은 일본으로 19.4명(남자 28.6명, 여자 10.6명)이었음.

○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자살률을 보인 국가는 그리스로 2.5명(남자 4.1명, 여자 0.9명)이었으며, 다음은 멕시코로 4.3명(남자 7.6명, 여자 1.3명)이었음.

[표9] OECD 국가의 자살의 연령표준화<sup>1)</sup> 사망률

(단위: 인구 10만명당)

국가	2002			200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1.1	17.6	4.7	9.8	15.7	4.1	(2004)
덴마크	10.8	16.7	5.2	9.9	15.0	5.3	(2006)
프랑스	15.1	23.4	7.8	14.2	21.8	7.3	(2006)
독일	10.8	17.1	5.3	9.1	14.5	4.3	(2006)
그리스	2.4	4.0	0.9	2.5	4.1	0.9	
헝가리	23.2	39.9	9.3	21.0	36.3	8.4	(2005)
아일랜드	11.1	18.2	4.0	10.0	16.4	3.6	
일본	18.7	28.2	9.7	19.4	28.6	10.6	
멕시코	4.1	7.2	1.3	4.3	7.6	1.3	(2006)
네덜란드	8.4	11.8	5.2	7.1	10.1	4.2	
노르웨이	10.2	15.2	5.5	10.8	16.0	5.6	(2006)
스위스	16.3	23.9	9.6	14.0	19.7	8.9	(2006)
영국	6.4	10.1	2.8	5.8	9.2	2.5	
미국	10.2	17.0	3.9	10.1	16.6	4.0	(2005)
OECD 국가 평균 <sup>2)</sup>	12.0	19.1	5.6	11.2	17.8	5.2	

주: 1)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의 평균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OECD 국가의 가장 최근년도 평균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Data 2009, 2009

□ 2008년 연령별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112.9명(인구 10만명당)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70대, 6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의 연령별 자살률을 1998년과 비교해 보면, 80세 이상이 122.2%가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다음은 70대의 순으로 높았음.
- 1998년 대비 2008년의 남자의 자살 사망률은 80세 이상이 103.4명(113.6%)이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음은 70대로 50.6명(78.6%)이 증가하였음.
- 여자의 경우 1998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층은 80세 이상으로 122.6%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20대 연령층으로 96.6%, 30대 76.5%, 40대 연령층 65.8%가 증가하여 노년층의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표10] 성·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1998~2008

(단위: 인구 10만명당,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성비
	1998	2008	증감	증감률	1998	2008	증감	증감률	1998	2008	증감	증감률	
계	18.4	26.0	7.6	41.3	26.5	33.4	6.9	26.0	10.3	18.7	8.4	81.6	1.8
10-19세	6.3	4.6	-1.7	-27.0	6.6	4.9	-1.7	-25.8	5.9	4.4	-1.5	-25.4	1.1
20-29세	17.4	22.6	5.2	29.9	22.9	22.2	-0.7	-3.1	11.7	23.0	11.3	96.6	1.0
30-39세	21.5	24.7	3.2	14.9	30.7	28.3	-2.4	-7.8	11.9	21.0	9.1	76.5	1.3
40-49세	27.6	28.4	0.8	2.9	43.3	38.1	-5.2	-12.0	11.1	18.4	7.3	65.8	2.1
50-59세	30.2	32.9	2.7	8.9	49.8	50.5	0.7	1.4	11.4	15.2	3.8	33.3	3.3
60-69세	33.5	47.2	13.7	40.9	57.7	74.1	16.4	28.4	14.9	23.3	8.4	56.4	3.2
70-79세	40.6	72.0	31.4	77.3	64.4	115.0	50.6	78.6	36.8	44.0	17.2	64.2	2.6
80세이상	50.8	112.9	62.1	122.2	91.0	194.4	103.4	113.6	35.8	79.7	43.9	122.6	2.4

자료: 통계청, 2008 사망원인통계연보, 2009

장영식(보건사회통계실 연구위원) 문의사항 (yschang@khasa.re.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